



언론계의 보도분야에서 일하려면 외신 전문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신문, 잡지 등 자료를 부단히 챙겨보아야 한다. 내 경우는 10월에 연례행사로 발표돼 나오는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해설하기 위해서도 일본 일간신문들의 과거에 쓰여진 기사를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일보사 창립자인 고(故) 장기영

洙)박사는 소중한 협력자였다. 취침중인 이박사에게 전화를 받게해서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업적해설에 협력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 화학도 몇분의 도움으로 어물어물 넘겼다.

제일 애먹은 분야가 의학·생리학상이었다. 생명공학이니 유전자공학이니 하는 최첨단 연구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오니 국내 전문가들도 정보가 충분치 못한 것 같았다.

마지못해 한국일보사의 지하 창고에 쌓여있던 일본의 갖가지 일간신문철을 찾아내서 내 나름대로 과학기술기사 목록을 작성했다. 과연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그 목록은 좋은 해설기사를 만드는데 길잡이 노릇을 해주었다.

#### RH혈액형으로 대특종

우리나라에서는 RH혈액형에 대해서 일반인이 전혀 몰랐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새로 도착한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의학 기사를 읽고 있자니 RH혈액형에 대해 쓰여 있었다. 마침 동대문 옆에 있는 이화여대부속 병원에 취재차 들렀던 김에 故 유승화(劉承華)당시 외과과장에게 우리나라에는 RH마이너스형 환자가 없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지금 막 그런 환자가 있어 메디컬센터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RH혈액형을 널리 알게 된 대특종이 정말로 우연하게 쓰이게 됐다. 우연도 있었지만 일본신문을 자세히 체크하는 버릇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일본신문들을 통해 그 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었다.

일본의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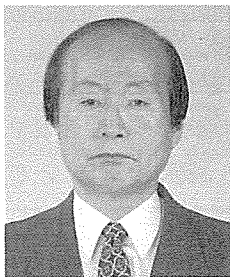
## 日本 見聞記 <I>

1958년 한국일보 과학부기자로 출발하여 조선일보 과학부차장 중앙일보 과학부장, 과기처 대변인, 주일대사관 과학관 등 91년까지 우리나라 개척기의 과학기술계 현장과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10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기술평론가 李鍾秀씨의 「日本 見聞記」를 연재한다.

(張基榮)전 경제기획원부총리(존칭생략, 이하 다른 분들도 동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신문사에 과학부를 설치했다. 1958년 3월1일부였다.

그 해 4월에 시험을 거쳐 견습 7기(쟁쟁한 인사를 다수 배출)로 입사하는 과학부를 희망했다. 일본 신문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해설을 곁들이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제의했다.

과학기자가 되고 나서 상당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그러나 국내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현재 한국 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인 이상수(李相



李鍾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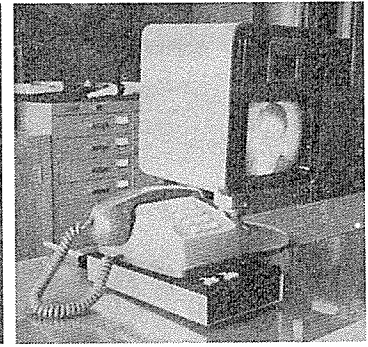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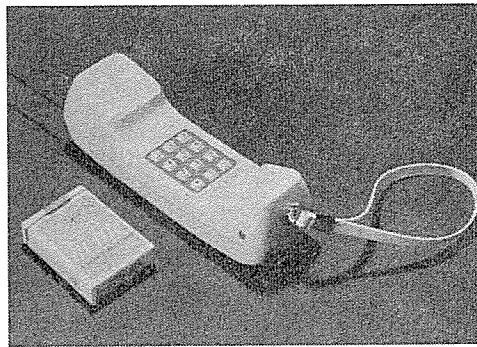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라있음을 실제로 확인한 것은 엑스포 '70에서였다. 1970년 3월15일부터 9월13일까지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초, 유일의 대대적인 일본만국박람회를 엑스포 '70이라고 불렀다.

### 일본 「엑스포 '70」취재 땀 감명

조선일보 과학부차장을 거쳐 당시는 중앙일보 과학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과학기술기사에 늘 관심을 기울이던 故 홍진기(洪璣基)사장의 지시로 내가 취재를 하게 됐다. 다른 신문에서도 과학분야에서 취재를 하게 된 결과 현원복(玄源福) 당시 서울신문 학술부장(본지 편집위원) 등과 엑스포 '70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벌인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미 자유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일본인들이 할아버지 때부터의



▲ 일본은 엑스포 '70을 기해 정보화사회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엑스포 '70에서 선보인 무선전화(왼쪽), 텔레비전전화

3대에 걸친 꿈을 실현시킨 대축제의 마당인 만큼 1백만평(역대 3위) 넓이에 대소 갖가지 파빌리온(전시장)으로 구성된 그 곳에는 최종적으로 약 6천2백만명의 관람객이 거쳐갔다. 홍진기 사장 부부도 관람하게 돼 수행하기도 했다.

전시장을 나와 출구를 향할 때 농촌에서 온 관람객들인지 왜소하고 검게 얼굴이 탄 남녀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보기에 저런 일본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이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그래” 하며 미소짓던 홍사장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어리는 듯하다.

그 당시는 컴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할 무렵으로 마치 보물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은 벌써 정보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여러 전시장 여기저기에는 미래에 꽃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새 기술의 싹이 터 있었다.

나는 중앙일보에 「현장

에서 본 미래기술」이라는 제목으로 15회에 걸쳐 연재 기사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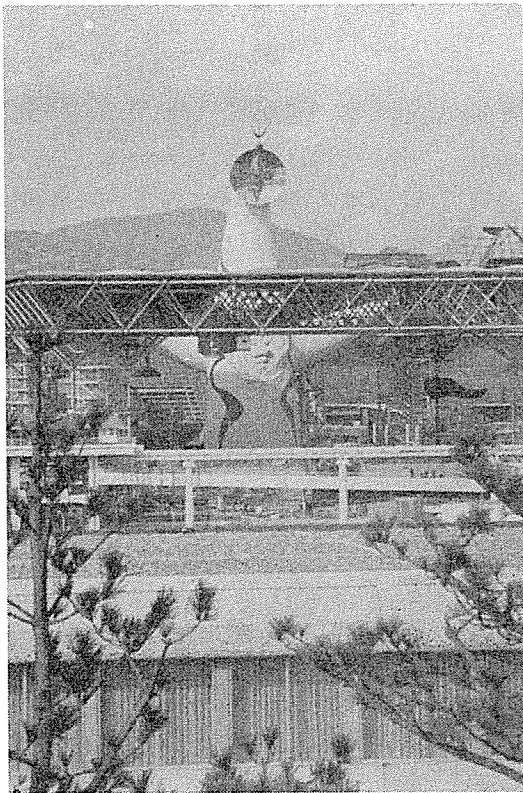
그해 10월에는 도쿄에서 아시아신문 과학부장회의가 개최됐다. 일본신문협회 주최의 그 회의에는 아시아 여러 신문의 중견 과학기자가 다수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원복편집위원과 고인이 된 한국일보 심승택(沈昇澤) 전 과학부장 등과 내가 참가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력으로·핵연료개발사업단 오아라이(大洗)공학센터 등의 시찰을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연구현장을 눈여겨 볼 수 있어 공부가 됐다.

### 주일대사관 과학관으로 9년

정부에서 장관 직속의 대변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73년 4월에는 과학기술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시의 장관은 현재의 과총회장 최형섭(崔亨燮)박사. 4년간 대변인직에서 일한 뒤 최장관의 배려로 주일한국대사관 과학관(외무이사관)으로 부임하게 됐다.

77년 5월부터 83년 5월까지 그리고 88년 5월부터 91년 5월까지 도합 9년간 내가 과학관으로 일한 기간은 일본의 과학기술이 최고도로 발전을 보인 시기였다. ㉗



▲ 엑스포 '70의 핵심지역이었던 심불 존(동서 7백50m, 남북 9백m)